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0 시 30 분 불기 2553 년 부처님 오신 날 7 일 기도 회향 및 봉축 법회
셋째주 일요일 오전 9 시 -오후 3 시 세인트루이스 지역 사찰 연합 부처님 오신 날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야유회 및 가족 운동회 11 시- 3 시
George Pierce Community 공원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광명으로 인도하는
마음 수행 쌓은 사람,
집착 멍에 벗어던지고
자유 누리는 사람,
어두운 번뇌 여윈 사람,
이 사람들
밝은 빛을 내고,
죽음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 맛보네.

For he whose mind is well trained in the ways
that lead to light, who surrenders the bondage
of attachments and finds joy in his freedom
from bondage, who free from the darkness of
passions shines pure in a radiance of light,
even in this mortal life he enjoys the immortal
NIRVAN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종정예하, 부처님오신날 법어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

불기 2553(2009)년 부처님오신날(5 월 2 일)을 앞두고 법전 조계종 종정예하가 8 일 법어를 내렸다. 법전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며 “비록 그 모습은 텅 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찾고 부르는 곳에 현응(玄應)함이 일지 않은 곳이 없다”고 설했다. 이어 “무명(無明) 속에서 걸림 없는 지혜를 얻은 이는 곳곳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것이요, 타 오르는 분노 속에서 대비심(大悲心)을 잃은 이는 이르는 곳마다 삼악도(三惡道)를 이룰 것”이라며 험 없는 정진과 수행을 당부했다.

다음은 법어 전문.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凡夫)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법신(法身)은 우주(宇宙)속에 변재(偏在)하여 고금(古今)이 없고 생멸(生滅)에 걸림이 없어 오고가는 자취가 없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텅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찾고 부르는 곳에 현응(玄應)함이 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만물(萬物)속에 인연 따라 그 모습을 나투어 빛과 소리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버리고 비우면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탐하고 얽매이면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눈 앞에 여래(如來)의 묘용(妙用)이 나타나고 있으니 보고 듣는 빛과 소리가 부처님의 지혜광명(智慧光明)이며 지나가는 바람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밝히고 있으니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일초일목(一草一木)이 여러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입니다.
무명(無明)속에서 걸림 없는 지혜를 얻은 이는 곳곳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것이요.
타 오르는 분노 속에서 대비심(大悲心)을 잃은 이는 이르는 곳마다 삼악도(三惡道)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업장(業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뜻 생명(生命)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불기 2553(2009)년 사월 초파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道林法傳)

전국 사찰서 봉축법요식 '나눔·통일' 실천 발원

불기 2553년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2만여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이 주관한 봉축 법요식이 열렸으며, 1만여 불자들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웃종교 대표와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천도교 김동환 교령, 천주교 김희중 주교, KNCC 권오성 총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윤구 청와대불자회 회장(사회정책수석비서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간히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법고와 범종을 울리는 명고와 명종의식으로 시작된 법회는 일주문 밖까지 들어찬 대중들의 삼귀의와 반야심경으로 이어졌다. 헌화에 이어 올해의 불자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의 불자대상 수상자는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 김태균 프로야구 선수, 임충빈 장군은

군 장성으로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여왔으며 국군불교총신도회 자문위원으로 군불교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됐다. 함께 수상한 윤원호 부회장은 17 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0 27 법난 특별법 제정 등의 의정활동이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한 점이 평가됐다. 프로야구 김태균 선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의 활약 등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불자선수이자 깊은 신행활동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불자로서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의 업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며 “비록 그 모습은 텅 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오늘은 만물 속에 인연 따라 그 모습을 나투어 빛과 소리로 여러분 곁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종정 법전스님은 이어 “무명 속에서 걸림 없는 지혜를 얻는 이는 곳곳에서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날 것”이라며 “오늘은 업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못 생명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법어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사월초파일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날이지만 세존의 탄신은 사월의 팔일만이 아니다”라며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모든 시간이 봉축의 초파일”이라며 부처님이 이땅에 오심을 축하했다. 지관스님은 이와 함께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할 수 없어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말한 뒤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설해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봉축법요식에서는 남북한 불교계가 공동 작성한 발원문을 낭독되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발원문에서 남북 불교계는 “우리 불교도들은 한마음으로 통일의 염원을 안고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헤치며 공동선언 실천행을 변함없이 이어 가겠다”며 “뜻 깊은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어엿한 통일보살로 거듭나는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가피를 내려달라”고 기원했다.

♫ ‘부처님이 우리곁에 오셨다’ ♫

나는 과연 불자인가 돌이켜 보자. 부처님이 오셨다. 산천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고 온갖 꽃들이 울긋불긋 자태를 뽐내는, 이 싱그런 시절에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을 맞아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기리고 있다. 새들고 숲속을 날아다니며 해맑은 목청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풀잎들도 방실방실 부처님께 웃음을 드린다.

♫ 우리의 영원한 스승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광명을 드리우신다. 부처님을 반겨 맞으며 우리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다시금 되새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일체중생이 나와 똑 같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긴다. “나는 부처요, 너도 부처이며 삼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그 우레와 같고 천둥과 같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한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또 새긴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는 깊은 뜻을 간직한 그 말씀도 행여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지 새삼 살펴본다. 등을 만들고 불을 켜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된다.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바친 작디작은 등 하나가 지닌 뜻을 되새긴다. 온갖 화려하고 커다란 등의 불이 다 꺼져도 그 여인의 작은 등은 끝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남에게 줄 것이 없다는 생각은 버려라.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 그걸 가진 것 없는, 적게 가진 네게 준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뜻이지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네게 그 한쪽을 떼어 준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담긴 뜻은 너와 나는 둘이 아니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음을 거듭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가.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사람이 더 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다. 그러기에 너와 나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지 않느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고달프면 나 또한 고달프다. 네가 밝고 환한 웃음을 지으면 나도 너를 따라 함께 웃지 않느냐.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네가 있기에 내가 있어 그 고달프고 힘든 삶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너 없이 내가 어찌 있으며 나 없이 너 또한 어찌 있으랴.

♫ 가르침 실천하자

우리는 우리 가슴에 늘상 계시는 부처님을 눈앞에 보이게 드러내야 하리라. “내가 곧 나와 똑 같은 부처”라는 당신의 말씀을 깊이 믿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리라.

“내가 바로 부처다. 단지 너는 그 엄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과 우치의 늪에 빠져 허둥대고 있어 그걸 모를

뿐이다.”

당신께서 아무리 자애롭고 쉬운 말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셔도 내가 어리석어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겉과 속이 부처님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어디 불자인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는 과연 불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가를 새삼 돌이켜 봐야하지 않겠는가.

[너무도 좋은 글이라 불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불교신문 2522 호/ 5 월 2 일자 사설을 옮겨 놓았습니다.]

미얀마 스님 “학교 지원해 준 한국불교에 감사”

사회부, 나네이사라 스님의 감사편지 공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 지역에 학교를 건립 중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미얀마 스님이 감사 편지를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회부는 지난 4 월 28 일 “학교 건설기금 전달을 위해 4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학교 건립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타구 불교협회 대표 나네이사라 스님이 총무원과 한국 불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나네이사라 스님은 편지에서 “우리의 이름은 ‘대승’과 ‘소승’으로 각기 다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재화와 격려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조계종의 보시금은 학교 건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스님은 “이러한 사업이 한국과 미얀마라는 두 불교국가간의 형제애와 상호 이해 촉진의 효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부는 오는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미얀마 양곤과 이라와디 지역에 학교를 건립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해 11 월 긴급구호 식량으로 쌀 3500 가마를 이라와디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포교종책 수립 데이터 구축한다

포교원, 23 일 불자의식조사연구팀 발족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23 일 포교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포교종책을 수립하기 위해 ‘불자의식조사 조사연구팀’을 발족했다. 불자의식조사 조사연구팀은 불자들의 의식변화와 포교지형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삼음과 더불어 미래의 전향적인 포교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사연구팀에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동성스님과 사무국장 원교스님, 고명석 선임연구원 등 5 명의 포교원 종무원과 김웅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등 3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연구팀은 오는 5 월말까지 불교계, 이웃종교, 학계 등에서 진행한 포교(선교)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전체 워크숍을 가진 뒤 본격적인 설문조사 및 분석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포교연구결과 분석은 김웅철 교수가 종단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이 이웃종교, 박수호 고려대 강사가 학계 논문 등에서 조사 및 연구한 성과물을 1 달동안 분석하게 된다. 또한 설문조사 및 분석작업은 리서치전문기관이 설문조사를 대행한 뒤 불자의식조사 조사연구팀이 그 결과를 분석해 포교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포교원 사이버불교대학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사이버불교대학 전문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계종 사찰 및 신도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수료한 종단 신도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이 ‘불교의 이해와 실행’을,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이 ‘불교사의 이해’를 각각 25 차례에 걸쳐 강의한다. 교육은 오는 5 월 27 일부터 9 월 19 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 차례 개설되며, 2 박 3 일간의 수련회도 마련된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5 월 25 일까지 사이버불교대학 홈페이지(www.edubuddha.net)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밝히는 뜻은
등은 마음이며 불빛은 지혜 상징 등공양은 자신의 지혜 밝히는 일

문 : 부처님오신날이면 항상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의 등을 밝히지는 않고 물질적인 등으로 복이나 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스님들도 법문에서는 마음의 등을 밝히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뜻에서 등을 밝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답 : 등은 불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이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봉축의 등을 켜는 것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등공양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가난한 여인 난타의 얘기일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여인 난타가 있었다. 어느 날 왕이나 부자들이 부처님께 등공양 올린 것을 본 난타는 그날 얻은 돈으로 초라한 등을 사서 공양 올렸다. 그런데 가장 보잘 것 없는 난타의 등은 거친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아침까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난타가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다.”

난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복을 받자는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최초로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득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이가 되었으면 하고 서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던 난타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대전환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예언하신 까닭이 난타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난타는 자신의 등 심지에 불을 붙인 것이며, 그 등불은 결코 줄지 않는 마음의 기쁨으로 꺼지지 않을 것임을 부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자신의 등에 불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신앙적인 행위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신앙의 힘을 다시 말보리심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도 밝고 다른 사람도 밝히는 지혜로운 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낭패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 맹인이 친척집에서 놀다가 밤늦게 돌아가게 되었다. 친척은 그에게 등불을 들려주었다. 본인은 앞을 볼 수 없으니 필요가 없겠지만, 길에서 마주칠 사람이 불빛을 보고 피하라는 배려였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치고 말았다. 장님은 화를 냈다. ‘앞 똑똑히 보고 다니시오.’ ‘깜깜해서 그런 것인데, 못 본 건 마찬가지 아니요?’ ‘당신 눈에는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불 꺼진 등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부처님은 빛이 되어 많은 이들을 깨닫게 했고, 또 그들의 빛은 더 많은 이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등이 다른 등에 불을 붙이듯 깨달음이 이어지는 것을 전등이라고 합니다. 그 등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부처님의 등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빌릴 수는 있겠지만 거친 바람에 꺼지고 맙니다.

자신의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야 언제나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공양 올리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마음등불을 점화해야 합니다.

-송강스님 -

봉 축 기 도

온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3년 (2009년) 4월 26일 (양력)에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었고, 5월 3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많은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아직까지 일년 연등 동참을 하지

못하신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동참은 5월까지 접수 받습니다. 가족등 및 일인 일등 모두 접수 받습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십만원) 입니다.

동참자 명단은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하고 가족등을 올리신 신도님들은 가족 대표만 올렸습니다. (5월 4일 현재)

- 2009년 기축년 봉축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 -

* 세계평화 원만 성취 발원

* Atlanta, Georgia 불사 원만 성취

1.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2. 무자생 문병현, 3. 임인생 문병귀, 4. 을미생 Tong Stanley, 5. 병오생 도광 이찬혁, 6. 기축생 김현웅, 7. 기유생 이백승, 8. 임진생 조남국, 9. 기유생 손종필, 10. 계축생 무문 김두, 11. 병진생 무영 김동하, 12. 기사생 강미자, 13. 무인생 Bill Lewis, 14. 갑오생 심용택, 15. 경인생 이재천, 16. 경인생 월인 안수근, 17. 정유생 윤용덕, 18. 무술생 박금란, 19. 무진생 신동윤, 20. 기사생 김태희, 21. 갑자생 오점순, 22. 개운사합창단, 23. 정유생 임명오, 24. 을미생 양영애, 25. 정사생 신정현, 26. 갑술생 조재복, 27. 을미생 최범영, 28. 정유생 양정애, 29. 갑자생 최근호, 30. 경술생 김제형, 31. 을묘생 신미현, 32. 기묘생 김문수, 33. 계미생 김지수, 34. 을유생 김은수, 35. 기해생 양인애, 37. 을축생 최재석, 38. 경오생 최재현, 39. 고려공인중개사사무소, 40. 계해생 대행 김균한, 41. 병신생 김영준, 42. 을사생 조양임, 43. 병자생 김인규, 44. 정미생 황현식, 45. 기유생 백유상, 46. 갑인생 신동화, 47. 임신생 신경용, 48. 을사생 송보영, 49. 을사생 극락심 강효정, 50. 임신생 송채원, 51. 갑술생 송지환, 52. 기사생 조순옥, 53. 청축생 권효영, 54. 갑오생 배제현, 55. 무진생 김대성, 56. 계축생 이금주, 57. 신사생 김준협, 58. 정해생 김준성, 59. 외교통상부, 60. 3등서기관 오종민, 61. 기축생 이범도, 62. 임진생 조화숙, 63. 신미생 이주홍, 64. 을해생 이성훈, 65. 경자생 민정기, 66. 무자생 67. 경오생 송지희, 68. 병오생 신상옥, 69. 병오생 홍대선, 70. 경술생 청정행정 해주, 71. 무인생 홍준수, 72. 정유생 정명 이용성, 73. 경자생 진여성 신숙례, 74. 정유생 박래경, 75. 기유생 조성기, 76. 권태일 유영옥, 77. 기사생 조영숙, 78. 김태용, 79. 김기순, 80. 정미생 한영택, 81. 무술생 황전아, 82. 임인생 송완근, 83. Lawson Robinson, 84. 경진생 박영찬, 85. 갑오생 허정석 (근일), 86. IL-Kwon Kim (김일권), 87. 도해 Brian Barry, 88. Joseph Bard McGibbon, 89. 기유생 문성훈, 90. 대운 김기현, 91. 기해생 서성진, 92. 병자생 한정언, 93. 계묘생 송영덕, 94. 병진생 이동엽, 95. 기사생 이주형, 96. Debra Tak, 97. 무오생 신선양, 98. 경신생 신동호, 99. 정유생 김동수, 100. 병신생 유혜숙, 101. 기미생 김근만, 102. 계해생 김경목, 103. 계묘생 박인환, 104. 계유생 무진 최무직, 105. 계유생 James Miller, 106. 갑진생 Mark Miller, 107. 갑오생 길상주 임태훈, 108. 기유생 청운심 이정상, 109. Michael Carpentier Family, 110. Greg Kilper Family, 111. 신미생 안계상, 112. 신사생 이재현, 113. 조상섭, 114. 이상현, 115. 김순옥, 116. 황우식, 117. 신묘생 박대원, 118. 경진생 김영희, 119. 갑신생 이희영.

- 불기 2553년 (2009년) 영가 일년 연등 기도 동참 명단 -

1. 강석주 대중사 선영 영가 (선각 복위), 2. 망부 남편후인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병현 복위), 3. 망 언니 전주유인 이호섭 영가 (행효녀 이호임 복위), 4. 망 신 길철 영가 (행효자 신동윤 복위), 5. 망 부 최 광석 영가 (행효자 최재석 복위), 6. 망 창원 황씨 일체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7. 망모 전주 유인 이득천 영가 (행효녀 지우 류정아 복위), 8. 망부 진주후인 강대학 영가 (행효녀 극락심 강효정 복위), 9. 망부 은진후인 송호창 영가 (행효자 송보영 복위), 10. 망 도반 광산유인 김 가야 영가, 망 도반 원주후인 변 형각 영가 (강효정 복위), 11. 망 친정 영가 일체 및 탐진 최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12. 망 오빠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13. 망 달성배씨 영가 일체 (행효자 배제현 복위), 14. 망 여신 송씨 일체 영가 (행효자 송완근 복위), 15. 망 조모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망 모 진학미 영가 (행효녀 박수민 복위)

- 부처님 오신날 7일 기도 및 법요식 비용 공양 보시 동참자 -

무량화 문봉순, 선법장 윤선정, 현심행 김설아, 청운화 Woojin Robinson, 이영우, 유영옥, 최문선, 양은진, 이경희, 양현숙, 지현자, 최범영, 박미진, 최창용, 김규화, 이지연, 안애경, 최수아



Commemorating the Birth, Enlightenment and Death of the Buddha

Sponsored annually by the Buddhist Council of Greater St. Louis

Sunday, May 17, 2009

9:30 a.m. to 3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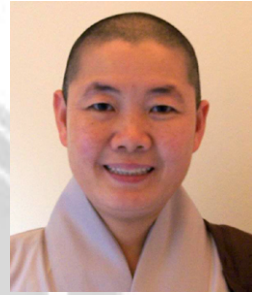


KARMA LEKSHE TSOMO

On the peaceful ground of the
Fo Guang Shan Saint Louis
Buddhist Center
Bridgeton, Missouri
3109 Smiley Rd.

Tel. (314) 209-8882

Free and Open to the Public



Ven. Sungak Sunim

Guest Speaker: *Karma Lekshe Tsom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 Religious Studies, University of San Diego*

Vesak Day Schedule of Events

- 9:00 AM** *Arrival and parking*
- 9:30 - 9:45 AM** *Opening Ceremony, led by the Monastics*
- 9:45 - 10:30 AM** *Bathing Buddha Rite, led by the Monastics*
- 10:30 - 11:45 AM** *Guided Meditation and Dharma Talk by Ven. Sungak Sunim,
Abbot of the Buddhara Monastery
(Children's program at the lower level: origami, painting, etc.)*
- 11:45 - 1:00 PM** *Vegetarian Lunch & Entertainment
Music by John Goldstein et al; Joe & Kim, the Jugglers*
- 1:00 - 1:20 PM** *Walking Meditation*
- 1:30 - 3:00 PM** *Dharma Talk on "Buddhism vs. Consumerism"
with Q & A, by Guest Speaker:
Karma Lekshe Tsom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 Religious Studies, Univ. of San Diego*
- 3:00 PM** *Dedication of Merit & Closing Ceremony, led by Ven. Miao Han,
Director, the Fo Guang Shan St. Louis Buddhist Center*

Directions: From I-270, head east on Dorsett Road toward Metro Blvd. (0.2 mi.). Turn left at Millwell Dr. (0.6 mi). Turn right at Midland Ave. (0.4 mi). Turn left at Smiley Road (0.4 mi), and stay on Smiley Road (0.3 mi). Fo Guang Shan St Louis Buddhist Center, 3109 Smiley Rd, Bridgeton, MO 63044 will be on the left. See Fo Gaung Shan St Louis Buddhist Center Website at: www.fgsstlbc.org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Don Sloane 314-576-4900, e-mail donshushu@maba-usa.org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야유회 및 가족 체육대회"를 조지 피어스 센터 공원에서 갖습니다. 야유회는 11시부터 공원 안 호수가 옆에 위치한 파빌리온에서

있는데, 피크닉 및 염주 만들기 와 애기연등 만들기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후 1 시 부터는 Community Center 옆 잔디밭에서 가족 운동회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야유회 및 가족 운동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안에 있는 호수 옆 파빌리온 과 잔디밭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연락처는 (404) 314-9431, 또는 (314)993-0185 입니다.

- 불기 2553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인 “부처님 오 신 날” 을 맞이 하여 일년 연등은 118 개 일년 영가 연등은 15 개 를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18 가족이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및 법요식에 필요한 공양금을 시주해 주셨고 법요식 당일에는 모든 불자들이 법요식에 참석하신 불자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불자들의 한 마음으로 준비해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성공리에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감사 드립니다.
- 5 월 16 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법회”에서는 “Karma Lekshe Tsomo”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 부다나라 법당에서 법회를 갖습니다. 법회에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 5 월 14 일부터 5 월 18 일까지 달라이라마 제자 이신 Karma Lekshe Tsomo 비구니 스님이 부다나라 (불국사)를 방문하십니다. 불자들은 스님이 부다나라에 상주하시는 동안 자주 사찰을 찾으셔서 스님으로부터 귀중한 법문을 들을 기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 5 월 17 은 Fo Guang Shan Saint Louis Buddhist Center 에서 ‘세인트루이스 연합 부처님 오신날’을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있습니다. 부다나라에서는 이날 참석한 불자들에게 한국음식인 “잡채”를, 한국 불교를 알리는 불교 문화 행사 교실은 “애기연등 만들기”를 준비 하기로 했습니다. 불자들의 “애기연등 만들기” 봉사 와 한국음식 봉사 를 기다립니다. 음식은 5 월 17 일 오전 8 시까지 부다나라에 도착해서 8 시 30 분에는 법회장소로 이동 합니다.
- 6 월 6 일 토요일 오후 1 시부터 3 시까지 St. Louis Gateway Arch (남쪽 계단쪽)에서 “Change Your Mind Day 2009” 행사가 있습니다. “Taiun Michael Elliston”스님의 법문도 듣고 다른 사찰 불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부다나라에서는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불교행사 참가 관계로 이날 오전 토요일 법회는 쉽니다.

- 2009 년 4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5 번 갑진생 감로수 김미정, 6 번 계미생 이지원, 7 번 병술생 이주원 (단비), 12 번 갑진생 김영호, 13 번 망모 전주유인 이득천 영가 (지우 류정아 복위), 32 번 정묘생 박정환, 163 번 망시부 밀양후인 박재수 영가 (유현숙 복위), 171 번 경인생 박찬국, 172 번 을미생 신경희, 173 번 경신생 박민우, 174 번 신유생 박시향, 175 번 망조모 전주유인 이씨 영가 (박찬국 복위), 312 번 경술생 권은리, 321 번 기해생 안애경, 345 번 573 번 갑신생 김승우, 574 번 병술생 김민우, 449 번 무진생 권지은, 450 번 임신생 권가은, 451 번 병자생 권순현, 583 번 신축생 서정수, 584 번 신축생 이영미, 585 번 임신생 서가영.

2009 년 5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586 번 병자생 조형준.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들에게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부처님 불사 : 고려치과 원장 경자생 안대원.

한 평 불사: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